

Cy외대

2015
AUT·WIN
Vol.3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ww.cufs.ac.kr | m.cufs.ac.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l. 02-2173-2580 Fax. 02-966-6183 카카오톡 ID: @cufs





Cy외대

정상에서 미래를 본다
정상에서 세계를 본다

누구나 정상에 오르기를 염원하지만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곳이 정상입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대학이라는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오른 사이버한국외대가 실현하고 있는 가치명제는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명제의 실현으로 사이버한국외대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사이버한국외대는 사이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클립형 교육 콘텐츠를 도입해 사이버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외 대학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사이버한국외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사이버한국외대가 앞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CONTENTS

정상에 선 Cy외대

- 04 Cy외대 및 한국외대 김인철 총장과 장진혁 총학생회장 대담
정상에 선 Cy외대의 'Only One'을 향한 다음 발걸음
- 08 Cy외대 Research
정상을 확인한 Cy외대 2015학년도 입시 결과
- 10 Cy외대 열정의 현장 2015 CUFESTA
배우Go! 어울리Go! 즐기Go!
- 12 Cy외대 사람들
Cy외대 사람들, 미래를 향해 JUMP UP

정상을 넘어 더 먼 미래로

- 16 조장연 부총장과 Cy외대 구성원 대표들의 좌담
따뜻한 사회 실현을 위해 'Best Service' 중심의 길을 간다
- 20 Cy외대 Focus
클립형 콘텐츠, 앞서가는 Cy외대
- 22 스마트 도서관 건립 캠페인
Cy외대 50억 원 출연, 사이버 대학 최초의
최첨단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 건립 예정

정상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 24 Cy외대 세계로 간다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고 국경을 허무는 글로벌 Cy외대
- 26 우리를 세계에 알리는 Cy외대
우리글, 말, 문화를 세계에 알린 해외한국어교육실습
- 28 세계가 배우는 Cy외대
Cy외대, 글로벌 리더의 길을 간다
- 30 Cy외대 입시정보
2016,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 발



Cy외대

2015
AUT-WIN
Vol.3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VER STORY

사이버 대학 교육이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공간 역시 중요하다. Cy외대는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 건립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확충해 명품 교육 서비스를 실현한다.

발행일 2015년 12월 10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조장연
발행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학생처
tel. 02-2173-2580
제작협력 그루인



정상에 선 Cy외대의 ‘Only One’을 향한 다음 발걸음

한국외대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차별화된 탄탄한 콘텐츠, 교직원이 하나 되어 만든 특별한 학생만족서비스로 사이버 대학의 춘추전국시대를 통일, 당당히 정상의 자리를 차지한 Cy외대. 그 중심에는 Cy외대의 미래를 한발 앞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김인철 총장이 있다. 정상에 만족하지 않고 그다음을 생각하는 김인철 총장의 미래 비전을 듣기 위해 장진혁 총학생회장(영어학부 4학년)이 학생들을 대표해 나섰다.

정리·박유리 | 사진·하지권

<Cy외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이버한국외대의 탁월한 성과의 바탕에는 총장님의 교육철학이 녹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장님의 교육철학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앨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등 세계적인 석학들의 예견대로 우리는 지식기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창출수단이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수단에서 점점 지식과 정보로 전이된 거죠.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저는 교육 또한 변화와 혁신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방향은 글로벌 리더로서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이루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 사이버한국외대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The Best Cy외대’를 목표로 콘텐츠 품질 개선, 학생감동 서비스 확대, 획기적인 장학제도 도입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교수들이 직접 학생을 만나 면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도를 높인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성과는 조장연 부총장을 비롯해 교수와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발적인 열정으로 혁신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총장님께서서는 한국외대와 사이버한국외대의 총장직을 겸하고 계신데요, 한국외대와 사이버한국외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사이버한국외대의 모태가 한국외대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세계 3위의 언어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외대 60년 전통의 외국어 교육 노하우와 교육목표, 체계, 시스템 등을

전수받아 Blended Learning 등으로 온라인상에 재현해 2004년에 개교했으니까요. 또한 2012년에는 사이버 대학 최초의 TESOL대학원과 평생교육원을 개원하고, 2013년에는 신축 교사를 완공해 독립된 첨단 교육환경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더해 별도의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사이버 대학 중 유일한 ‘외국어 특성화 대학’으로 정상의 사이버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한국외대의 눈부신 성장으로 ‘외대’라는 브랜드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영역까지 그 가치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서로 윈윈하며 시너지를 내는 상생, 이것이 현재 한국외대와 사이버한국외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외대가 세계 3위의 언어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사이버한국외대의 국내외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음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국내 사이버 대학 중 최대 규모의 원어민 교수진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Blended 수업, 다채로운 특강 등 수준별 맞춤 교육 강화를 통해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 대학으로서의 명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교육공간 확충도 계획 중인데요, 한국외대 스마트 도서관 상층부에 사이버한국외대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도서관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대학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긍정의 힘, 성공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



우리 학생들이 무엇보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인생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았을 때보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김인철 총장은 학생들에게 중용 제23장의 가르침을 배워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거주 교민과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장학 혜택을 마련하고 있고, 국내 사이버 대학 최초로 글로벌 CDN을 도입해 해외에서도 고화질 명품 교육 콘텐츠 수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사이버한국외대가 되기 위한 최고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린 나이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졸업 후 행로와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질문하신대로 초창기에는 재학생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30~40대였습니다만 최근엔 10~20대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이버한국외대만이 지닌 강점 즉, 외국어와 실용학문의 융·복합 교육을 받아 글로벌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이버 대학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해외 우수 대학에서의 해외연수를 비롯해 해외한국어교육실습, 해외 문화 탐방 등 현장감 있는 학습활동과 해외 취업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졸업생들이 통·번역가, 글로벌 한국어교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글로벌 지역전문가로 성장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학의 지원이나 성과와 견주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게 사실이죠.

사이버한국외대 학생들과 앞으로 입학할 미래의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무엇보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인생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았을 때보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한국외대 행정학과에 다니던 1~2학년

때 정말로 진지하고 깊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했어요. 고민 결과 학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대학원 진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ROTC에 자원입대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ROTC를 선택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리더의 자질 등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게 됐고, 학자가 되어 한국외대로 돌아와 교수가 되었을 때 학교를 위해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리더, 총장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데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ROTC에 자원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ROTC 덕분이고, 아내의 조언이 있었기에 마라톤도 시작했으니까요.

마라톤 완주처럼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게 된 총장님만의 노하우와 철학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긍정과 작은 것의 힘을 믿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 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을

읽어보면 결국 모든 성공은 긍정적인 자세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장선상에서 저는 먼 데보다도 가까이 있는 것부터 고민하고, 결정하고, 노력합니다. 영화 <역린>에도 나온 애긴데, <중용> 23장의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먼 미래를 생각하거나 구상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너무 크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까이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고민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면 그걸 작게 쪼개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결정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CS*

정상을 확인한 Cy외대 2015학년도 입시 결과

사이버한국외대는 혁신적인 콘텐츠 업그레이드, 최고를 지향하는 학생감동서비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Need Based 장학제도 등에 힘입어 2015학년도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2015학년도 입시의 특징과 성공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Cy외대는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대학이다

2015학년도 입시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에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에 특화된 전문성과 우수함이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대학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고하게 자리잡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입학학생들의 직업 스펙트럼이 넓다는 사실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부가 9.2%이며, 다음으로는 학생 7.3%, 공무원 6.4%이고 그외에도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존재한다. 이는 사이버한국외대가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학생,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장년층, 사회로 재진출하려는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찾는 재도약의 구름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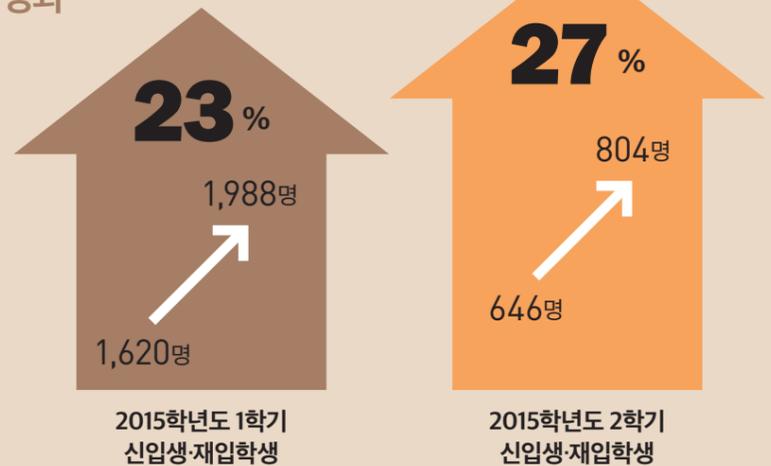
입학생 증가의 상승 곡선은 이어지고 있다

2015학년도 입학생은 모두 2,326명이며, 이 중에서 2학기 입학생은 662명이다. 전년에 비해 일반 신입입생의 증가는 물론 위탁교육 협약을 통한 산업체 입학생, 달라진 학교의 위상을 전해듣고 다시 돌아온 재입학생 증가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입학생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인 콘텐츠 업그레이드와 명품을 추구하는 학생감동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를 지향하는 학생감동서비스는 오프라인 일대일 상담지도 시스템 도입, 영문 이력서, 에세이 첨삭 무료 컨설팅 시행, 지역인재 7급(견습)공무원 학교추천전형 준비반 운영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Cy외대에는 오프라인 대학 이상의 낭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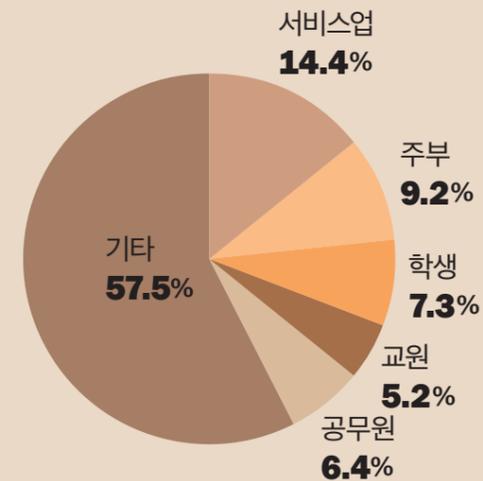
사이버한국외대의 2015학년도 입시 성공에는 동문, 재학생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다른 어떤 사이버대학보다 오프라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학생이 토요일이면 사이버한국외대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동아리 활동, 토요일강 등에 참여해 학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의 토요일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브런치, 다과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입학설명회에도 함께 참여해 앞으로 후배가 될 입학지원자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멘토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혁신적인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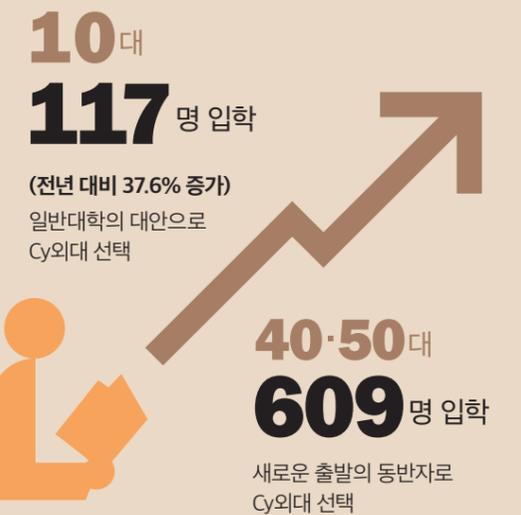


2015학년도 입시, 다양한 직업군, 다채로운 연령대의 많은 분이 Cy외대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에게 희망이 되는 Cy외대



사회 진출과 재도약의 디딤돌이 되는 Cy외대



나날이 놀라워지는 학생감동서비스

교수들이 학생을 직접 만나러 가는 찾아가는 서비스 'CUFS, 아름다운 동행',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사행정 상담 서비스 시간 연장, 쉬고 싶은 토요일이지만 공부를 위해 학교를 찾은 학생들을 위한 CUFS Brunch Time과 CUFS Afternoon Tea Time 등 특별한 학생 서비스를 선보여온 사이버한국외대가 2015년 2학기 다시 한 번 놀라운 학생감동서비스를 시작했다.

글로벌 커리어? 사이버한국외대에게 물어봐! 영문이력서·에세이 무료 첨삭 서비스

세계를 무대로 나서고자 하는 사이버한국외대인들을 돕기 위해 아심차게 선보인 서비스. 1주일 단위로 신청을 받고 첨삭을 진행하는데 학기나 방학과 관계없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어 더 반갑다. 품질 높다는 입소문으로 매주 10~20명의 학생들이 찾을 만큼 반응이 뜨거우니 이용하려는 학생이라면 조금 서두를 것!

취업에서 이직까지! 국문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및 취업컨설팅 지원 서비스

Job을 통해 Profession 그리고 Calling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이버한국외대 학생들을 위한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 신입공채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여타 오프라인 대학과 달리 인턴십, 경력직과 이직 등에 관한 다양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기 중에는 1~2회, 방학 기간에는 1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니 필요한 학생들은 공지 게시판을 주시할 것!

나의 '든든한 울타리' Cy외대! 지역인재 7급(견습)공무원 학교추천전형 준비반 서비스

정부에서 시행중인 '지역인재 7급(견습)공무원 학교추천전형'에 대해서 알고, 공무원이 되어 국민과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사이버한국외대인들이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지난 9월 1기로 4명이 선발되어 인터넷 강의 수강료 30% 감면, 강의 80% 이상 수강 시 인터넷 강의료 50% 환급, 스펠딩 강의실 지원, 모의고사 및 선배 공무원의 멘토링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준비반 모집은 매년 3월과 9월에 이루어지니 놓치지 말자!

지역인재 7급(견습)공무원 학교추천전형이란?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PSAT(필기)와 면접을 거쳐 견습공무원으로 선발되면 1년간의 견습근무 후 심사를 거쳐 7급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된다.

Cy외대 열정의 현장

2015 CUFESTA

배우Go! 어울리Go! 즐기Go!

사이버한국외대의 가을축제 CUFESTA가 지난 11월 14일 김인철 총장과 조장연 부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8시간에 이르는 긴 행사였음에도 교직원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축제 내내 웃음과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고, 학부별로 진행된 '오픈 하우스'를 통해 함께 공부하는 선-후배, 동기들과 소소한 이야기들 나누며 유대감을 키울 뿐 아니라 학업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까지 알차게 챙기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CUFESTA의 백미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가을음악회.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따로 짬을 내 음악회를 관람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사이버한국외대 학생이기에 주어지는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즐길 수 있는 기회는 뿌듯함과 자부심을 저절로 솟아나게 하는 자리가 됐다.



Cy외대 사람들, 미래를 향해 JUMP UP

Cy외대에서는 직업과 나이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Cy외대 학우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따라가 보았다.

스페인어권 교환교사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을 열다

아이들이 떠난 오후 5시. 장평중학교 미술실은 이인규 학우의 공부방이 된다. 이곳에서 이인규 학우는 강의를 듣고, 교수님의 발음을 따라 연습하기도 한다. 강의를 듣는 중에 잠시 실 때는 스페인어학부 밴드에 올라온 글을 확인하고, 댓글을 달거나, 학우들과 채팅을 한다.

이인규 학우는 내년 여름 졸업한다.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해 스페인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했다.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어 회화만을 배우려 한다면 학원에 가는 것이 빠를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사이버한국외대 스페인어학부를 선택한 것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인규 학우의 진짜 꿈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에 교환교사로 가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지금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게 될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이다.



이인규 학우는 장평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임용 4년차 미술선생님이다. 우루과이에서 사업하시는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가 스페인어와 사랑에 빠졌고 말았다.



이인규 학우
스페인어학부 4학년

저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나라에 교환교사로 가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입니다.

인생 제2막, 금융교육전문가의 길을 간다

FINANCE & ACCOU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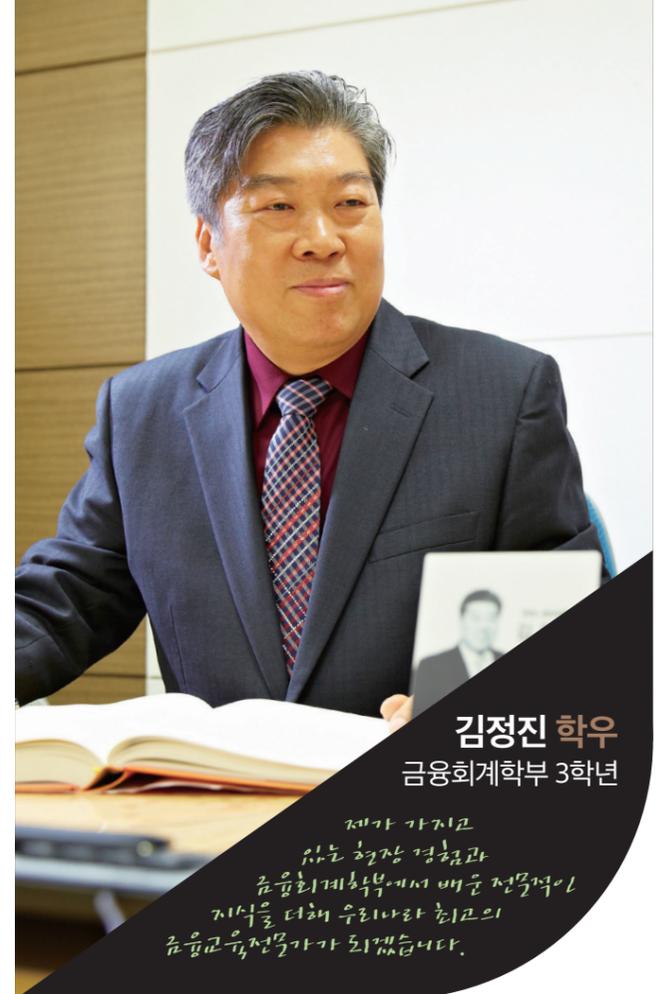


김정진 학우의 일주일은 강의 수강 계획으로 시작된다. 새롭게 시작한 공부에 어색하고, 컴퓨터 앞에서 교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낯설지만 월요일에 세운 계획대로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수강하지 못한 과목은 주말에 보충한다. 김정진 학우는 강의가 열리는 첫 주에 수강

신청한 모든 강의를 수강하고, 두 번째 주에는 다시보기로 복습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강의를 집중해서 듣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저처럼 나이 든 학생에게 다시보기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능이에요.”라며 강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김정진 학우는 은행 퇴직 후 금융교육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 사이버한국외대 금융회계학부에 입학했다. 그가 정릉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군인을 대상으로 개인 신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평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강의했더니 군인들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자신에게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한 김정진 학우는 현장 경험과 금융회계학부에서 배운 지식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교육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고 있다.

김정진 학우는 주택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까지 KB국민은행 지점장을 역임했고, 은퇴 후 새롭게 열거할 인생 제2막을 사이버한국외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김정진 학우
금융회계학부 3학년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장 경험과 금융회계학부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을 더해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교육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세계화의 첫 걸음, 중국어 공부로 시작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오선영 학우는 중국인 환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중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하고 사이버한국외대 중국어학부에 입학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에 비해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치료받으러 오는 중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라며 중국어를 배우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녀에게는 병원을 방문하는 중국인 환자들이 중국어 대화 상대이자 선생님이다. 간호사들이 중국인 환자에게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만 해도 긴장하고 있던 환자들의 표정이 풀린다고 한다.

오선영 학우는 앞으로 의료계에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길을 본인이 앞서 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영역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걸어가는 사람을 개척자라고 한다. 오선영 학우야말로 대한민국 의료 세계화의 개척자이다.



오선영 학우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중국인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오선영 학우
중국어학부 1학년

먼저야말로 의료 세계화를 위해 병원에서 언어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의료 세계화의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권미숙 학우
아세안지역경영학부
3학년

제 꿈은
인도네시아에서
멋지게 의료
비즈니스를
펼쳐보는
것이에요.

글로벌 의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간다



권미숙 학우는 건설회사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남편을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갔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인도네시아 생활은 5년이나 이어졌다. 귀국 후 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사업 아이템은 한국의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인도네시아에 소개하는 것이다. 사업 준비의 첫 관문인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한국외대 아세안지역경영학부 입학を決정한 권미숙 학우는 내년 초에 잠시 인도네시아에 다녀올 계획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한 학기 동안 배운 인도네시아어를 실전에서 활용해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다부진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중이다. 권미숙 학우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비즈니스를 당차게 펼쳐나갈 때까지 사이버한국외대는 응원할 것이다.

권미숙 학우는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주부이다. 인도네시아에서 5년 동안 생활했던 그녀는 인도네시아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꿈을 키우고 있다.

국제 컨퍼런스 진행자가 되기 위해 학교로 돌아왔다

신동형 학우는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에 입학하기 전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았다.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신동형 학우는 회사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데 불편함은 없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장생활과 학업의 병행을 위해 100퍼센트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사이버한국외대를 선택했다. 신동형 학우는 공부할 여건이 갖추어진 만큼 자신의 영어 실력은 이제 본인의 노력 여하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영어 실력은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라는 결의에 찬 말에서 그의 꿈이 실현되는 날이 앞으로 머지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신동형 학우는 서울대학교 약대를 졸업했다.
현재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9년차 직장인이다.

신동형 학우
영어학부 3학년



10월쯤 후에는
국제 제약
컨퍼런스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
싶으면
합니다.

베트남 새댁,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꿈을 품에 안다



국연정 학우는 작년 9월 한국어학부에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 설명을 몇 번씩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라며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배움의 길을 지속할 수 있는 건 꿈, 그리고 사이버한국외대 교수님들, 동료들 덕분이다. 국연정 학우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제일 먼저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새댁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연정 학우가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국연정 학우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이다.
신한은행에서 통번역 일을 4년째 하고 있다

국연정 학우
한국어학부 2학년

저는 제가
태어난 나라인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Cy외대에서 일본어 번역가로 가는 길을 보았다



김시락 학우는 올해 9월 입학 후 일본어학부 오프라인 모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그의 집은 강서구 등촌동이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등촌동에서 사이버한국외대가 있는 이문동까지는 결코 짧은 길이다. 그럼에도 김시락 학우가 은빛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토요일마다 사이버관을 찾아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수업을 듣는 데 불편하지는 않지만 시험 볼 때는 비장애인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교수님들과 동료 학우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오프라인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있습니다.”라며 오프라인 모임을 찾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시락 학우는 일본어 번역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번역하는 일은 번역해야 할 원고들이 파일로만 되어 있으면 시각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한자입니다. 비장애인에게도 한자가 어렵지만 저희 같은 시각장애인은 발음으로만 글자를 인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라며 번역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시락 학우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다.
현재는 성북구 사회복지관에서 점자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김시락 학우
일본어학부
2학년

사이버한국외대는
일본어 번역가의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갈 것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중랑구를 꿈꾼다



공공관리학부 3학년에 재학중인 이현배 학우는 중랑구 구의원에게 주어진 업무로 시간을 잘게 쪼개어 써도 모자랄 지경이다. 강의 수강을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할애할 수밖에 없다. 구의원으로서, 주부로서 바쁘게 생활하는 이현배 학우. 그렇지만 지금껏 강의 수강을 내일로 미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오늘 듣는 강의 내용이 내일 현장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도 강의 수강만은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요즘에는 ‘지방예산회계분석실무’ 과목이 사실 큰 도움을 줍니다.”라며 기초자치단체 초선의원인 자신의 의정활동에 공공관리학부 커리큘럼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현배 학우는 1987년 한국외대 중국어과를 졸업한 한국외대 가족이다. 사이버한국외대에서 공공관리학부를 초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망설임 없이 입학を決정했다. 하지만 모교 사랑 때문에 입학 원서를 접수한 것은 아니다. 한국외대의 전통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사이버한국외대라는 브랜드에 믿음이 갔기 때문이다. 이현배 학우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초선의원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성공적인 선택이 되었다.

이현배 학우는 중랑구의회 의원이다. 당선 이후 주민복지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남보다 한발 앞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현배 학우
공공관리학부
3학년

Cy외대에서
지방자치
행정 관련 지식을
쌓아서
장애인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활용
하겠습니다.



조장연 부총장과 Cy외대 구성원 대표들의 좌담

<참석자> 조장연 부총장

교수 대표 : 윤병조 금융회계학부

직원 대표 : 이태용 온라인 교육지원처

재학생 대표 : 신장건 한국어학부

졸업생 대표 : 이근수 영어학부

예비입학생 대표 : 캣소파니(한국어를 김수진)

따뜻한 사회 실현을 위해 'Best Service' 뚝심의 길을 간다



사이버 대학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지난 1년, 사이버한국외대는 입학생 23%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며 단숨에 정상에 섰다. 이 빛나는 결과는 Best Service라는 절대적 가치명제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사이버한국외대를 이끌어온 조장연 부총장의 뚝심으로부터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다음 발걸음을 함께 내딛기 위해 조장연 부총장이 교수, 교직원, 재학생과 졸업 동문 그리고 입학 예정인 외국인 학생까지 Cy외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이들을 초대해 사이버한국외대의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리·박유리 | 사진·최항영

이태용(직원 대표) 직원 대표로서 오늘과 같은 대화의 자리가 참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두 함께 Best Service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한편으로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구성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구성원들을 포함해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어떻게 유지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부총장 '합'이 왜 힘드냐하면 '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입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한국외대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을 학생을 위한 Best Service로 정했어요. Best Service를 통해 따뜻한 사회 구현의 일익을 담당하고 그리하여 존경받는 대학을 이루자, 이것을 우리의 가치명제로 삼은 거죠. 조직에 있어 화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화합을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가치명제의 실현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1년간 가치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한 학기에 하위 30% 강좌 폐지 등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다른 사이버 대학들보다 월등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가치명제가 상당히 실현됐죠. 그래서 화합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화합의 대전제는 가치명제가 만족되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태용 말씀하신 가치명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이버한국외대 구성원 모두가 부총장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Job'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Profession'과 'Calling'을 추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Calling은커녕 Profession 단계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부총장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최대의 급여를 받는 것 그건 Job입니다. Profession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각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면, 왜인지를 자문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항상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자신에게 자랑스러운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Profession 단계를 거쳐 Calling으로 가기 위해선 종교가 필요해요. 개신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신앙을 가져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존재 이유, 시간에 따라 부패하는 '겉사람'이 아닌 매일이 전성시대인 '속사람'을 알게 되거든요. 신앙이 없다면 양심과 이상을 따라가세요. 신앙과 양심, 이상을

앞으로도 우리가 'Best Service를 통한 따뜻한 사회 구현, 존경받는 대학'이라는
가치명제를 꾸준히 실현해 낸다면 Cy외대는 다른 사이버 대학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걸
넘어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스탠더드가 될 것이니까요.



바탕으로 한 속사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그 노력이
직업에서는 Calling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캣소파니(김수진 예비입학생 대표) 저는 캄보디아에서 왔고
한국어학부에 입학할 예정이에요. 제 꿈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요, 가깝게는
사이버한국외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지, 더 멀리는 제
미래와 진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부총장 진심으로 환영해요. 앞으로 캄보디아와 우리나라가
함께하는 비즈니스가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
한국어학부뿐 아니라 아세안지역경영학부를 복수전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화장실 갈 때도 뛰어다닐 만큼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열심히 해야 하는 건 학생
뿐만이 아닙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버한국외대
학생들은 실무를 하면서 대학 공부를 하니 노력 여부에 따라
더욱 실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사이버한국외대는 앞서 말했던 Best Service, 명품
교육 서비스를 더욱 확대·강화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국제화,
글로벌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이버
대학이 21개가 있는데 다들 국제화 개념이 희박해요. 그런데
사이버한국외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2개 대학과
상당히 깊은 교류를 맺고 왔어요. 이걸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사이버한국외대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따뜻한
사회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사이버한국외대가
되기 위해서 교내적으로는 장애인 직원 채용이나
소득하위 계층과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재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고 교외적으로는 낙후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 존경받는 대한민국 국민, 존경받는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근수(졸업생 대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더 크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치활동 지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총장 제 생각엔 그런 부분도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판단의 근거는 앞서 말한 바 있는 Best
Service입니다. 존경받는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 이런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그 실현을 위해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구체적 계획과 함께 예산을 올리세요. 그러면
학교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신장건(재학생 대표) 사이버한국외대는 제가 유일하게 제 의지로
선택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다른 분들도
사이버한국외대의 참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건 광고나 홍보만으로 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학생이
학교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부총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총장 전 정말 우리가 제공하는 Best Service를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오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나눠서
머칠씩 공부를 하는 집체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력에
따른 차등화 교육도 준비 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강의의
'혁명적인 변화'예요. 온라인 강의가 다 80~9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15분 단위의 클럽형태로 다 바꾸고
있어요. 강의와 관련한 또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과목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수들이
어떤 과목을 개설하면 한 학기 동안 수강해야 할 주차별 강좌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목
이수를 위한 필수 강좌만 정하고 나머지 강의는 자신이 원하는
토픽을 정해 수강하면 그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지금 특허출원중이고 특허권을 학교에
기증할 예정이에요.

윤병조(교수 대표) 빌 때마다 부총장님의 강력하면서도 따뜻한
리더십과 카리스마 그리고 끊임없는 비전 제시에 놀라곤
합니다. 그런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총장 제가 매일 매일이 전성시대라서 그래요. 하하.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말도 안 되죠. 육신은 점점 나이 들어
쇠락해가고 있으니깐요. 제가 전성시대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에
인내하고 지혜를 터득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것이죠.



왼쪽부터 이근수 영어학부 졸업생, 신장건 한국어학부 재학생, 캣소파니(한국어를 김수진)
한국어학부 예비입학생, 조장연 부총장, 윤병조 금융회계학부 교수, 이태용 온라인 교육지원처 직원

또 한가지는 오늘이 저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저를 피곤해 합니다.
자꾸 새롭게 뭔가를 하자고 하고 일도 시키니까. 하하.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에너지라는 게 벽난로의 장작 같아요.
하나가 잘 타면 2개, 3개가 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근처에 있는
모든 장작들에 저절로 불이 붙어요. 사이버한국외대도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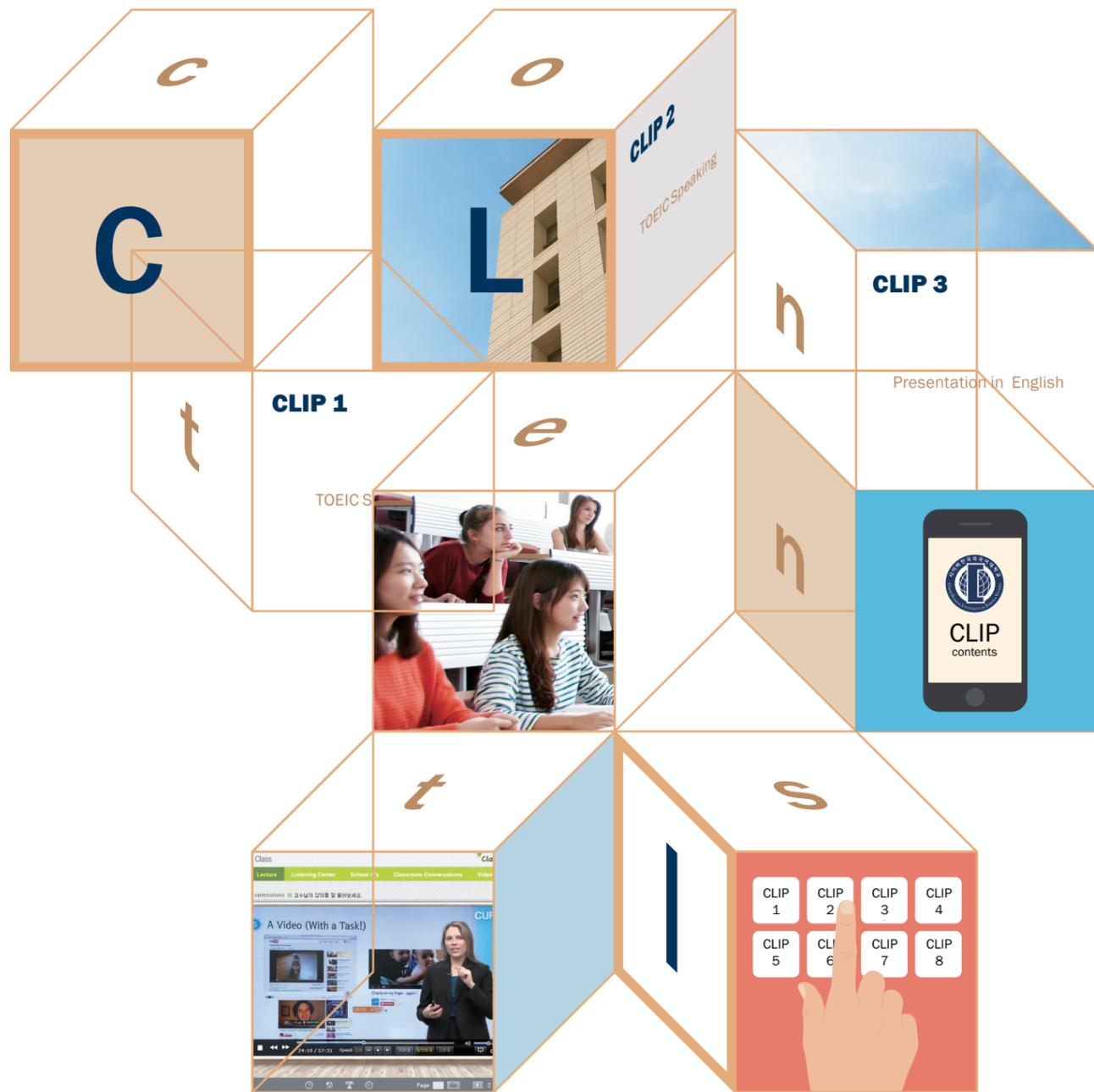
꼭 사이버한국외대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본류가 됐으면 합니다.

이태용 전체적으로 사이버 대학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이버한국외대는
입학생수가 23%나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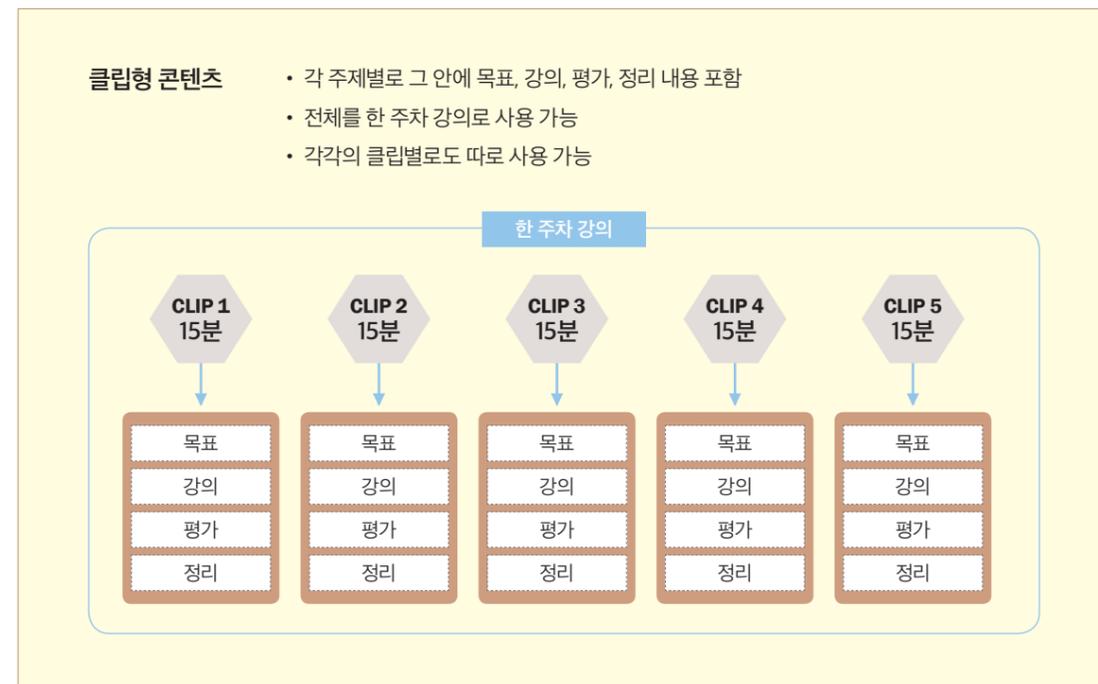
부총장 좀 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입학철에 광고 내고
모집한다고 입학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Best
Service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만족해 입소문을 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족도가 1년 만에 77%에서 83%로
늘었어요. 그건 우리 사이버한국외대의 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가치명제를 잘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가치명제를 꾸준히 실현해낸다면
사이버한국외대는 다른 사이버 대학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걸
넘어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스탠더드가 될 것이니까요.

클립형 콘텐츠 앞서가는 Cy외대

Cy외대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 강화를 위해 e-Learning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클립형 교육 콘텐츠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학부를 2016학년도 1학기 클립형 교육 콘텐츠 중점 개발 학부로 선정하고, 중국어문법작문 등 5개 교과목을 클립형 교육 콘텐츠로 개발할 예정이다.



사이버한국외대 클립형 교육 콘텐츠 (특허출원 준비중)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교육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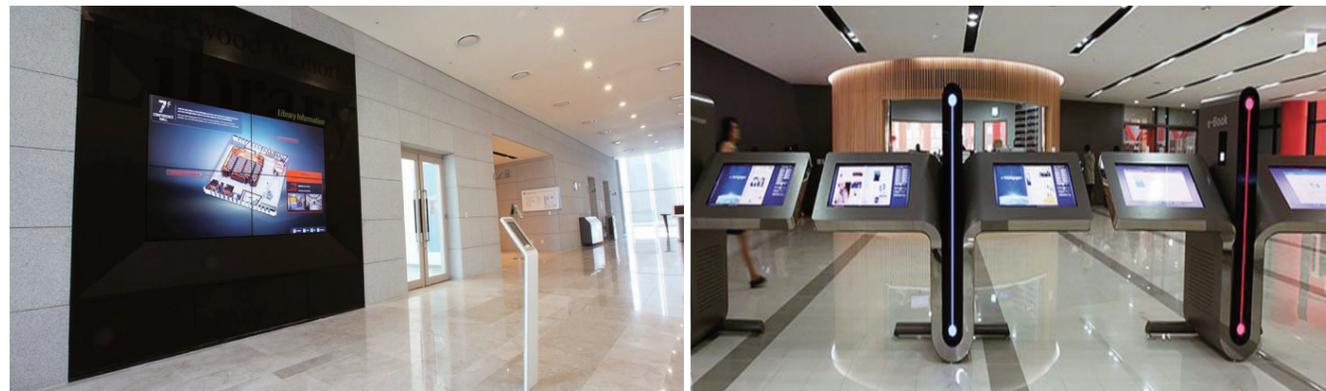
클립형 교육 콘텐츠가 e-Learning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클립형 교육 콘텐츠는 15~20분 내외로 구성된 작은 단위의 교육용 동영상을 기본 단위로 하여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마치 각각의 레고블록을 조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처럼 학습자 본인이 관심 있는 교육 내용과 수준으로 독립적인 콘텐츠를 선택 및 조합하여 학생 주도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클립형 교육 콘텐츠가 e-Learning의 강력한 교수법으로 등장한 것은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클립형 교육 콘텐츠는 짧은 시간에 한 가지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므로, 이동 중이나 바쁜 일과 사이에 학습을 하는 사이버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콘텐츠 형태이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 수준에 맞게 학습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모바일 및 PC에서 연동 가능한 콘텐츠

자신이 보고 싶은 내용만 짧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클립형 교육 콘텐츠는 여러 디바이스에서 편하게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자가 모바일 학습 시 버퍼링이나 서버 용량, 데이터 요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클립형 교육 콘텐츠는 매력적인 콘텐츠 형태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콘텐츠 내용 수정이 수월하다는 점이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시간이 지나면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 클립형 교육 콘텐츠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클립만 골라내어 수정할 수 있어 유지보수 및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각기 다른 커리큘럼의 콘텐츠를 패키징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 점을 활용하면 학습내용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클립을 구성하여 수백 개의 과목을 만들 수 있다. 클립형 교육 콘텐츠는 각 주제별로 그 안에 목표, 강의, 평가, 정리 내용을 포함시켜서 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클립형 교육 콘텐츠는 각각의 클립별로 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Cy외대

Cy외대 50억 원 출연, 사이버 대학 최초의 최첨단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 건립 예정

많은 사이버 대학이 명품 교육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상에 선 Cy외대는 한 차원 높은 ‘Best Service’를 지향한다. 사이버 대학 교육이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공간 역시 중요하다. Cy외대는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 건립으로 오프라인 학습 공간을 확충해 명품 교육 서비스를 실현한다.



서울캠퍼스 스마트 도서관에 마련되는 Cy외대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

한국외대와 사이버한국외대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의 기존 도서관 증·개축을 통해 총체적 경험공간을 지향하는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저녁 7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스마트 도서관 건립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대학 도서관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야심찬 비전으로 준비하는 스마트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의 도서 열람 및 학습 기능에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식 및 정보 제공 기능,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복합문화시설을 갖춰 문화 및 소통 공간 기능을 더할 예정이다.

대형 디스플레이는 도서관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여줄 뿐 아니라 안내 키오스크는 사용자 중심의 터치스크린으로 바뀌고, 벽면을 활용해 디지털 아트 감상도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열람실 좌석과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 도서관 공간의 이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예약 가능 공간 확인 및 좌석 배정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공간 또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가는 북카페처럼 편안하고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한 서가로 옷을 갈아입고, 연구 발표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세미나실, 학생들을 위한 AV시스템이 갖춰진 강의형 스터디룸, 연구와 학습을 위한 1인 또는 다인용 소규모 열람실(carrel) 등이 확충된다. 학생들의 휴식과 소통을 위한 글로벌 라운지, 스마트 장비를 갖춘 컨퍼런스홀과 영화,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 상영과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 등도 마련된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이러한 서울캠퍼스 스마트 도서관 상층부에 사이버한국외대의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이 들어선다는 점이다. 사이버 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소장 및 탐구 공간으로 활용될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은 사이버 대학 중 최초의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으로, 사이버 교육의 미래를 내다본 사이버한국외대의 ‘결단’이라고 할 만큼 파격적인 일이다. 실력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확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 명실상부한 사이버 대학 교육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사이버한국외대.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은 이러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스탠더드가 되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사이버한국외대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

스탠더드가 되는 대학, Cy외대를 향해

스마트 도서관은 총 4년에 걸쳐 건립될 예정인데, 2016년 4월에 공사가 시작된다.

첫 2년 동안은 증·개축을 포함한 외양과 IT 시스템의 기초 완성을, 다음 2년 동안은 본격적으로 IT 및 스마트화 시공을 하게 된다.

이러한 스마트 도서관 건립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스마트 도서관 건립 사업은 단순한 공간 확충 사업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인재 양성을 기반으로 한국외대와 사이버한국외대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후배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독려하는 일일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 도서관 건립 캠페인’은 스마트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알려 동문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적극적인 건립 기금 후원을 통해 완공에 필요한 비용이 마련될 때까지 진행된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주저할 필요는 전혀 없다. 건립 기금을 후원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예우도 매우 다양해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후원 금액에 따라 도서관 시설과 공간에 원하는 명칭을 제정하거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며, ‘내 이름 남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의자나 책상, 테이블에 이름이 새겨진다. 또한 동문 1만 명이 매월 1만 원씩 기부하여 외대인·Cy외대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자는 의미의 소액 기부 프로그램인 ‘만만혜(萬萬惠)’에 참여할 수도 있다. 

2015 미주 방문 해외세미나 & 중남미 현지 입학설명회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고 국경을 허무는 글로벌 Cy외대



세계를 향한 Cy외대의 당당한 행보가 눈부시다 못해 시리다. 국내 사이버 대학 중 유일한 외국어 특성화 대학으로 국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오프라인 국제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의 인재들이 국경을 넘어 Cy외대를 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한 결과다. 그중에서도 경쟁률이 치열했던 미주 방문 해외세미나와 중남미 현지 입학설명회의 뜨거운 열기를 전한다.

2015 미주 방문 해외세미나 체험수기

경험은 생각을 넓히고, 생각이 넓어지자 ‘미래’는 더 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다양한 한인기업과 사업가들, 선배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구글 등 현지 기업과 스탠포드 등 현지 대학 방문뿐 아니라 흥미진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미주 방문 해외세미나는 한국외대 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이버한국외대에서는 학부 재학생 5명과 TESOL 대학원생 2명만이 선발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는데, 다행히 제가 선발되어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국외대 글로벌CEO 과정 동문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 방문, 현지 KOTRA에서 스타트업 활동에 관한 워크숍, 스탠포드 대학과 UC버클리

중남미 현지 입학설명회 취재

시간도, 국경도 학업을 향한 열정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약 2주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관문인 멕시코시티와 과테말라시티에서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설명회가 개최되었다. 무엇이 사이버한국외대 교수들로 하여금 이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가게 했을까? 바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이버한국외대의 신념이 그것이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사이버 교육의 최대 장점을 온전히 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의 첫 발을 내딛는 곳으로는 사이버한국외대와 시공간의 격차가 가장 큰 라틴아메리카가 제격이라는 생각이다.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LA로 이동해서는 덴마크 정착마을 솔뱅 관광, 류현진의 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마틴 김의 가이드로 다저스 스타디움 체험, 한인회장이 준비한 만찬, LA올림픽 경찰서 방문, 한인기업 천하보험 방문과 대표 강연 참석, 미국 보일러리 시장 1위를 차지한 경동나비엔을 방문해 성장 비결 확인, 1위 한인은행인 월서은행 방문과 은행장 강연 참석, 한인미디어인 TVK 방문, LA해양소방서의 파이어 보트 탑승, 글로벌CEO 총동문회 환영만찬 및 교류 행사 등 다이나믹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제가 얻은 수확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큼 나아갈 수 있다고들 하는데,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국이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결실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의 사고의 범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까지 넓어졌습니다. 특히 글로벌CEO 과정의 선배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쩌면 향후 제가

사이버한국외대 입학학생처장이자 스페인어학부장 김수진 교수와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부원장 김희진 교수는 “사이버 대학으로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대학인 사이버한국외대에서 최고의 강사진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고품격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또한 학교 소개와 학부 소개, 입학 절차, 등록금을 비롯해 한인회와의 협약을 통해 마련된 라틴아메리카 거주 지원 학생들이 받게 될 입학금과 등록금 면제 및 감면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입학설명회 현장에서는 20대 청년들 뿐 아니라 중년의 나이에도 배움을 꿈꾸는 교민과 주재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 지구 반대편에서 사이버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사이버한국외대 전체 교수를 대표해 김수진

하는 사업이 미국과 연결되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는 구체적인 그림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캠퍼스처럼 자유로운 분위기 또한 제 회사의 미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열매는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세미나 내내 7명의 사이버한국외대생과 17명의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한 몸처럼 생활하면서 서로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끈끈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도 평생 동안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사람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교수님들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도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로 환대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더 학업에 정진하고 사업도 잘 이끌어서 후배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주(영어학부 학생)

교수와 김희진 교수는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이버한국외대 재학생들과 만나 식사를 함께 하며 사제시간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먼 거리의 학생들을 교수들이 직접 찾아나서는 학생감동서비스로 유명한 사이버한국외대 교수들의 라틴아메리카 거주 재학생과의 만남은 먼 타국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지속하며 고독한 학업을 이어온 재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현재 사이버한국외대는 완벽한 모바일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고 최고 품질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전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유럽과 미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뜨거운 향학열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그야말로 시간도 국경도 가로막을 수 없는 글로벌 사이버 교육의 중심지에 사이버한국외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 사이버 대학은 수도 없지만 세계 어디에 있어도 선택은 단 하나 사이버한국외대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해외한국어교육실습, 살아 있는 경험되다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의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은 국내 사이버 대학 중 유일한 외국어 특성화 대학인 사이버한국외대만의 해외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07년부터 매 학기 진행해 오고 있다. 언어권별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해 기획된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은 학생들에게는 해외의 학습자들과 한국어 교사를 만나 현지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확인할 좋은 기회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우리글과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중국 산둥대학교(2007), 중국 천진사범대학교(2010, 2011),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한국학교(2008, 2009, 2010, 2011, 2012), 태국 치앙마이 와타노타이피아압 고등학교(2013, 2014), 방콕 세종학당(2014) 등에서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이 이루어져 왔으며, 2015년 동계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은 내년 2월, 일본의 니가타현립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Cy*

우리글, 말, 문화를 세계에 알린 해외한국어교육실습

Cy외대 한국어학부가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진행한 2015학년도 하계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해외한국어교육실습에는 Cy외대 한국어학부 재학생 15명이 참여했다. 한국어 캠프로 진행된 이번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은 바르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배우고 있는 바르나 공립 제8고등학교 학생들과 성인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닷새간 진행되었다.



Cy외대, 불가리아에 한류 열풍 일으키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 곳곳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 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요즘, 불가리아에서 열린 바르나 한국어 캠프에 대해 바르나 지역 방송은 물론 불가리아 중앙 언론매체인 노바불가리아 등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취재, 보도했다. 2015학년도 하계 해외한국어교육실습에 참여한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 예비교사들은 지난 2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주말을 활용해 총 12회에 걸쳐 오리엔테이션, 실습 훈련을 진행하는 등 이번 바르나 한국어 캠프를 철저히 준비했다. 캠프장 장비부터 간식, 교육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캠프에 관한 모든 준비는 학생들이 직접 했다. 프로그램도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태권무, K-pop, 민요 배우기, 전통 음식 만들기, 한복 체험, 한지 공예, 서예, 세배 체험, 전통 놀이 체험 등 15가지로 다양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가리아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체험할 수 있었다.

불가리아 한국어교육실습 체험기 한국어로 하나 된 불가리아 한국어교육실습

박윤희(한국어학부 4학년)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 해외 한국어교육실습 팀원(교수 1명, 학생 15명)들은 지난 7월 3일(금) 저녁, 불가리아 바르나를 향해 출발했다. 한국에서 불가리아로 가는 직항이 없어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 들어가야 하는 21시간의 긴 여정이었지만, 불가리아 현지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검은 바다라는 뜻의 체르노 모래 호텔의 리셉션 홀에서 7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4박 5일 동안 한국어 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번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은 바르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 바르나 공립 제8고등학교 학생들과 성인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서로 떨리는 만남의 순간,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의 얼굴 표정에서 강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이때 우리 교사들은 서로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긴장감을 풀어주자!'였다. 미리 준비해간 전통 놀이 도구인 투호던지기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했더니 학생들이 스스로 긴장감을 풀어가기 시작했다. 한층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하계 불가리아 바르나 한국어교육 실습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점이 참 많다. 불가리아의 문화와 역사, 사람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문화와 언어는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교류할 때 그 영향력이나 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 같다. 또한 나는 과연 어떤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것도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외한국어교육실습 팀을 잘 이끌어주신 두 분의 교수님과 팀원들, 실습 경비 등을 지원해주신 학교 측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Cy외대, 글로벌 리더의 길을 간다

사이버한국외대가 추구하고 있는 'The Best Cy외대'를 배우기 위해 세계 대학들이 사이버한국외대를 찾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이들 대학과의 MOU를 체결하고 사이버한국외대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기술협력 협약 체결을 위해 반등공과대학을 방문한 조장연 부총장(왼쪽에서 세번째)



인도네시아 민족대학(UNAS) 방문단 사이버한국외대 방문



공고민주공화국 연수단 사이버한국외대 견학

해외에 전하는 글로벌 Cy외대의 자부심

사이버한국외대는 해외 현지 입학설명회와 해외 대학과의 교육협력 협약 체결로 글로벌 대학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한국외대는 동경외대, 미국의 에너하임대학 등 많은 해외 우수대학들과 교육협력 협약을 맺었다. 또한 미주 내 45개 지부와 20여 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교육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인회와 교육협약을 체결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2016학년도 핵심 키워드를 '글로벌'로 세우고 학생들이 국제적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조장연 부총장을 대표로 하는 인도네시아 방문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교민과 주재원 대상의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과의 교육협력 협약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방문단은 입학설명회를 통해 현지 거주 교민과 주재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 입학설명회 참석자들은 사이버한국외대의 배려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사이버한국외대 방문단은 자카르타와 반등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만나 격려하는 등 학생감동서비스를 실천했다. 2016학년도 1학기 입시설명회에서 조장연 부총장은 "사이버한국외대는 현재 각 학부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를 넘어 인도네시아 지역에도 교수를 파견해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한국외대는 인도네시아 한인회와 교육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인회 추천으로 사이버한국외대에 신·편입할 경우 정규 학기 수업료의 50%에 해당하는 장학금 수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사이버한국외대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반등공과대학(ITB, Institut Teknologi Bandung)과 인도네시아 민족대학(UNAS, Universitas Nasional)을 방문해 반등공과대학과는 기술협력 협약을, 인도네시아 민족대학과는 교육협력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이들 대학들과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증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민족대학(UNAS)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Cy외대가 한·중·일 3국의 사이버 외국어 교육의 중심에 선다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콘텐츠와 감동을 주는 학생 서비스로 재학생들에게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이버 대학 재학생'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외국의 여러 대학들은 사이버한국외대 재학생들의 자부심에 주목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온라인 교육 노하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이웃 일본의 동경외국어대학교이다. 일본 동경외국어대학교의 다테이시 히로타카 총장 등 주요 인사로 구성된 동경외대 방문단이 10월 29일 사이버한국외대의 운영 노하우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한국외대를 방문했다. 일본 동경외대는 약 50개 외국어 과정을 운영하는 일본 국립 단과대학으로 어학교육의 명문대학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사이버한국외대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한 교육협약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이번 방문을 통해 사이버한국외대와 동경외대는 적극적으로 기술협력을 검토하고 학생과 교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3개국의 명문 외국어 대학교인 한국외대·동경외대·북경외대·상하이외대가 가진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사이버한국외대 조장연 부총장은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의 외국어대학교가 온라인 교류 협력을 추진 시에는 대한민국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 대학인 사이버한국외대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나아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노하우까지도 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에는 공고민주공화국 연수단이 사이버한국외대를 방문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진행하는 '공고민주공화국 맞춤형 원격교육모델 전수' 프로그램에서 사이버한국외대가 원격대학의 성공적 운영사례로 추천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공고민주공화국 국립대(UNIKIN) 총장과 교수, 교원대(UPN) 교수 등 14명이 연수단으로 참여해 사이버 대학으로는 사이버한국외대를 유일하게 방문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방송국 수준의 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는 UHD 스튜디오 등을 개방해 콘텐츠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스튜디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www*



일본 동경외대 캠퍼스에서 사이버한국외대·동경외대 교육협력 체결

2016,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 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설명회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에 관심 있는 예비지원자들에게 사이버한국외대를 소개하는 입학설명회가 2015년 11월 28일부터 모두 5회에 걸쳐 사이버한국외대에서 진행된다. 사이버한국외대의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설명회에는 다과와 함께하는 학교소개 시간, 사이버한국외대의 Full-HD 첨단 스튜디오 체험 등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 온라인(모바일) 학습 시연을 통해 진학 후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참가자 개인별 관심 분야에 따라 해당 학부의 전임교수와 1:1 맞춤형 진학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형평가의 70%를 차지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사이버한국외대 김수진 입학학생처장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예비지원자들이 함께 차 한 잔 나누며 학교를 둘러보는 편안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원 전 궁금한 사항이나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설명회에는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지원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입학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사이버한국외대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이 증정한다. 사이버한국외대의 입학설명회 및 학생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cufs.ac.kr/adms>) 혹은 전화 02-2173-2580), 이메일(ipsi@cufs.ac.kr)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스마트한 문의 창구도 마련되어 있다. 카카오톡(ID: @cufs)에서는 실시간 문의가 가능하다.



일정

일자	시간	장소	비고
2015. 11. 28 (토)	13:30~14:30	사이버관 801호	
2015. 12. 2 (수)	19:30~20:30	사이버관 801호	
2015. 12. 12 (토)	13:30~14:30	사이버관 303호(소강당)	•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소강당에서 독립영화제 개최
2015. 12. 19 (토)	13:30~14:30	사이버관 801호	• 입학설명회 종료 후 오후 3시부터 번역특강 개최
2016. 1. 6 (수)	19:30~20:30	사이버관 801호	

※ 설명회 종료 후 학부 개별 상담 실시

참석신청 온라인 신청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상단 '교내 입학설명회 신청'을 통해 신청
참석대상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자 혜택 참석자 전원 다과 제공 및 기념품 증정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1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만든 정규 4년제 대학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가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형일정	1차 2015년 12월 1일(화) ~ 2016년 1월 8일(금) 2차 2016년 1월 21일(목) ~ 2016년 2월 16일(화)
모집학부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아세안지역경영학부, 금융회계학부, 공공관리학부
모집정원	3,765명 일반전형 신·편입생 1,894명 특별전형 신·편입생 1,871명
지원대상	신입학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편입학 2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교 1년 이상 수료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3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http://www.cufs.ac.kr>)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나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02-2173-2580 이메일 ipsi@cufs.ac.kr 카카오톡 ID: @cufs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TESOL과 실용영어를 동시에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이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전공은 TESOL 단일 전공으로, 5학기제로 운영됩니다. 졸업 시 TESOL 석사학위와 더불어 TESOL Certificate가 수여됩니다.

전형일정	1차 2015년 11월 9일(월) ~ 2015년 12월 11일(금) 2차 2016년 1월 11일(월) ~ 2016년 1월 29일(금) ※ 1차 전형 후 인원 충원시 2차 모집하지 않음.
모집정원	정원 내 80명, 정원 외 9명
지원대상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http://grad.cufs.ac.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나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02-2173-2290 이메일 kyohak@cufs.ac.kr 카카오톡 ID: @cufstesol